

이미지 셋째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의견

채권자 김00은 채무자 김00에게 수차례에 금원을 1억원을 대여해주었 으며 언니 동생사이로 친분이 있어서 아무런 증서도 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당시 송파구 거여동에 부동산 주택이 채무자 김00명으로 등기도 돼여있는 소유자였으므로 의심 없이 자금을 대여해주었는데 언니 나 사정이 안 조의니까 마음데로 하라는 식을 나와서 채무자 김00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채무자의 시아제 정00명의로 2002년12월5 일 등기명의가 바꿔졌고 채권자 김00은 아무증서도 없이 소송을 할려니까 사건을 맞아주는데가 없다고 본인 행정사 사무소에 찾아와서 채권자 김00과 함께 부동산등기 명의자인 채무자 시아제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록취하여 록취록을 만들어서 통정에 의한 채권자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 김00이 형사 고소 하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니까 대여금 갑아줄테니 합의하자고 제의가 와서 대여금 변제 받고 원만이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